

제공일자	2014. 10. 29(화)	담당자	임준환 연구위원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28
			총2매

제목 :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 합의의 기대효과 극대화를 위해 원화 국제화 병행과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 완비 필요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임준환 선임연구위원, 황인창 연구위원, 김혜란 연구원은 『위안화 활용도 제고 합의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테마진단).
- 최근 한-중 정상회담에서 ‘위안화 활용도 제고’ 방안이 합의되었는데, 이는 한-중 간 대외무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.
-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1) 한국에서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, 2)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, 3)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(RQFII)의 자격 부여, 4)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장려임.
 - * (원-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) 한국에서 국내 은행 간 시장에서 원-위안화가 직접 거래되는 것을 의미함.
 - * (위안화 청산체제 구축) 한국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,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함.
 - * (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(RQFII) 자격 부여) 한국에 800억 위안(약 13조 450억 원)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(RQFII) 자격 부여함.
 - * (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장려)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장려함.

□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 합의는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와 중·장기적인 효과를 함께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.

- (직접적 효과) 원-위안화 환거래 및 결제수수료를 절감시키고, 국내 투자자에게 위안화 투자를 다양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.
 - 직거래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, 원-위안화 환전수수료가 현재 거래 대금의 7% 수준에서 최대 2~3%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(홍콩 시장에서 홍콩달러-위안화 환전수수료는 2~3% 내외임)
 -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, 거래비용 절감효과는 약 10~12조 원으로 추정됨.
- (중·장기적 효과) 위안화 역외금융허브로의 성장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, 이로 인한 결제 및 거래 통화의 다변화는 금융시장의 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.

□ 위안화 활용도 제고 방안 합의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려면, 위안화 국제화와 더불어 원화 국제화가 병행되어야 하고, 위안화 역외금융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제도 완비가 필요함.

- 원화 국제화를 위해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중국에도 원-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해야 함.
- 위안화 역외금융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첫째, 원-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중개시스템 구축 및 시장조성자를 지정하고, 둘째, 위안화 금융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제도 마련해야 하며(예, 유동성 공급제도), 마지막으로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(RQFII) 자격 취득 지원 및 위안화 수급창출을 위한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 허용이라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.

첨부 : 테마진단 “위안화 활용도 제고 합의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”. 끝.